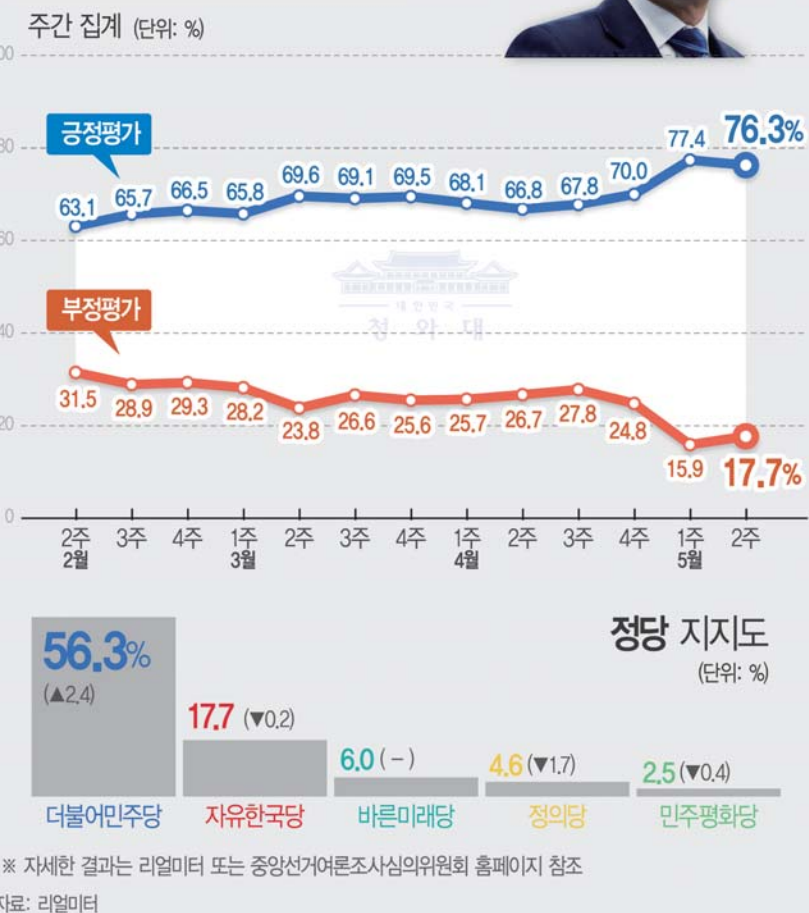


# 文대통령, 지지율 76.3% 남북회담 효과 조정 앙상

### 3주 연속 상승세 마감...지난주 대비 1.1%p ↓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월8~11일 전국 성인 2,002명/46%의 응답률  
표집오차 ±2.2%p(95%신뢰수준)/의뢰기관:CBS



조사해 발표한 5월2주차 주간집계 (95% 신뢰 수준·표본오차 ± 2.2%p·응답률 4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6.3%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17.7%(매우 잘못 9.3%·잘못하는 편 8.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0%로 집계됐다.

4월2주차 조사를 기점으로 3주 연속 상승세(67.8%→70.0%→77.4%)를 탔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소 주춤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수직상승 여세를 몰아 80%대 진입을 바라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9.9%p 떨어진 77.2%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3.5%p·59.9%)과 부산·울산·경남(↓1.9%p·72.8%)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광주·전라(↑4.3%p·92.4%)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40대(↓6.2%p·79.9%), 50대(↓2.3%p·70.4%), 30대(↓2.1%p·83.2%)에서 각각 떨어졌고 60대 이상(↑2.5%p·68.2%)과 20대(↑1.0%p·83.4%)에서 각각 올랐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56.3%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17.7%)·바른미래당(6.0%)·정의당(4.6%)·민주평화당(2.5%) 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6.3%로 지난 주 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11일 나흘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 민주 광주시당, 전국 최초 청년비례 절차-자격 시비

### 참여 자격 제한·후보 학력 위조 의혹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대표제와 관련, 상상실현네트워크와 위민연구원,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등 광주지역 일부 청년단체들이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비례 대표 공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 대표제가 자격 시비에 휘말리면서 공정한 논란을 낳고 있다. 상상실현네트워크와 위민연구원,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등 광주지역 일부 청년단체들은 1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비례 대표 공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비례대표 추천공고를 통해 참여자격을 관리당원으로 한 정해 청년참여를 제한시켰고, 당 초 예고했던 공개오디션도 취소해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 대표제가 자격 시비에 휘말리면서 공정한 논란을 낳고 있다. 상상실현네트워크와 위민연구원,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등 광주지역 일부 청년단체들은 1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비례 대표 공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명백한 학력 위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원 재직시절인 2016년 10월 용역임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정보가 유출돼 심사위원들이 항의하고 입찰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가 이뤄졌고, 최씨는 이후 자진 사퇴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이같은 사실을 당 검증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들은 최씨에 대한 검증 실패와 자격 문제를 이유로 공천 자격 박탈을 촉구한 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식농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SNS 활동을 하지 않는데 대화원 재학 중 페이스북에 남긴 학력사항을 뒤늦게 발견하고 삭제했고, 아시아문화원 입찰 문제로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계약직 임기 만료로 그만둔 것이고 징계 때문에 사직한 건 아니며, 의혹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찰문제를 바로 잡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민선 거인단 구성을 위해 4만6000건의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각 구별 60명씩,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해 모두 300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했다.

뉴스스

## 이재명 캠프 "남경필 '공과사' 구분 못해"

### "가족사 정치에 악용 안돼...남 후보 아들 안 끌어들이"

6·13 지방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한항공 일가 갑질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남 후보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일가 갑질은 사생활 영역'이라고 밝혔다"며 "법외회사 대표의 직원에 대한 갑질이 어떻게 사생활이 된다 말인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 발언은 대표 일가 갑질이 눈물 짓던 대한항공 직원들을 두 번 죽이는 말"이라며 "남 후보는 직원들의 이름을 사생활로 치부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 후보는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데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 대변인은 "가슴 아픈 가족사도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 후보 아들의 성추행, 미약 밀반입, 여성에게 미약 권유 등을 이유로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남 후보는 당초 밝힌 대로 정책선거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정책선거를 통해로 포기하고 유권자로부터 외면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뉴스스

##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 "TV토론 불참은 선거 파괴적 폐" 참여 촉구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는 14일 "최소 6차례 TV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도지사 후보의 성실한 토론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차원에서도 선거 TV토론은 필수사안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어떤 후보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의무토론회마저 발급 내고 불참해 버리겠다는 말이 들린다"면서 "민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남도민을 우롱하고 선거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후보들은 TV토론을 비롯한 모든 토론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평화당 김상국 예비후보 탈당, 민주당 박병동 후보 지지



민주평화당 김상국 예비후보가 14일 장흥군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병동 장흥군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장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년 동안 요직에서 일했고 공직 퇴임 이후 많은 공직 제의가 있었으나 고향을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장흥군수 선거에 도전했다면서 "그러나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술수와 서로간의 배신 음모와 모략 뒤통수처치가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흥발기인을 공천 배제해 버리는 민주평화당에 전혀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탈당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박병동 후보가 군수가 된다면 공직생활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고향 장흥 발전을 위해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